

마중 나온 만삭 아내와 귀가하던 곡성군 공무원 날벼락

투신 대학생이 덮쳐 '안타까운 죽음'

가족 망연자실...동료 "곡성 알리기 잦은 야근 등 성실한 직원"

“가족과 일밖에 모를 정도로 성실한 직원이었는데요, 상상할 수도 없는 사고로 안타깝게 떠날 줄이야.”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가정이 귀가하던 중 아파트에서 투신한 대학생과 충돌해 세상을 떠났다. 현장에는 이날 버스정류장까지 마중 나와 함께 집으로 향하던 만삭의 아내와 여섯 살배기 아들이 있었다.

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9시48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 출입구 장애인 통로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곡성군청 직원 양모(39·7급)씨가 20층에서 투신한 대학생 유모(25)씨와 충돌했다. 양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유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곡성군청에서 일하는 양씨는 매일 광주에서 출퇴근을 하면서도 지각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했다. 또 업무 특성상 대부분 광주행 시외버스 막차 시간까지 일할 정도로 야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사고 당일에도 전날까지 열린 장미축제 관련 업무를 마치고 오후 8시46분께 퇴근, 막차를 타고 광주의 집으로 향했다.

특히 양씨는 이날 아파트 인근 버스승강장에서 마중 나온 임신 8개월의 아내(35), 아들(6)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양씨의 아내와 아들은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 있어 화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가 출입구에 먼저 도착해 아내에게 “어서 오라”고 말하는 순

간 아파트 위에서 소주병 한 개가 떨어졌다. 이어 몸을 움찔하는 찰나 유씨가 떨어지면서 양씨를 덮쳤다. 소주병은 투신 직전 유씨가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양씨의 아내는 경찰에서 “너무 힘들어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렸다. 양씨의 직장 상사인 곡성군청 한 관계자는 “남들보다 항상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일하는 직원이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고려대 출신으로 지난 2008년 경기도 여주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양씨는 공직 생활이 8년밖에 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할 처지다. 영암이 고향인 양씨는 지난 2011년 ‘고향에서 일하고 싶다’며 곡성군청으로 전입했다.

곡성군청 관계자는 “양씨가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을 하던 길에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를 신청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투신한 유씨는 지역 한 국립대 4학년으로, 6개월 전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500여m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유씨는 이날 투신을 위해 양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 유씨가 투신한 것으로 보이는 이 아파트 20층 복도에서는 슬병과 A4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본심 아닌 주위 시선 신경쓰여서 보는 공무원 시험, 외롭다’, ‘열등감을 느낀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유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숨겨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씨를 숨지게 한 유씨가 입건되면 보상 등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검인기자 kki@kwangju.co.kr

“부정입찰로 판 공사, 대금 못받아도 사기죄”

대법, 한전 입찰비리 관련 판결 원심 깨고 광주고법 돌려보내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한 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기공사의 입찰가 격을 미리 알아내 계약을 따낸 혐의(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전기공사업체 대표 주모(41)씨의 상 고심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36억81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2심이 사기죄의 범리를 오해해 범행의 성립 여부와 사기로 얻은 재산상 이익인 편익액을 잘못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부정입찰에 속아 피고인이 얻게 된 재산상 이익은 공사대금 지급이 아니라 부정합 나찰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 그 자체”라며 “원심은 이를 잘못 판단해 공사대금 지급 처분을 전제로 사기 행위의 미수 여부를 가렸다”고 밝혔다.

주씨는 2005년 1월부터 2014년 11월 까지 한전 전기공사의 입찰시스템을 관리하는 자회사에 파견된 정보통신업체 전 직원 4명과 짜고 낙찰가를 미리 알아 내는 방법으로 자신의 회사를 비롯한 특정 업체들이 공사계약을 낙찰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총 기회의 부정입찰로 받은 공사대금 1577억원을 사기 이득액으로 보고 징역 7년과 추징액 36억원을 선고했다. 36억원은 입찰들이 주씨에게 낙찰 대가로 준 돈이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18번의 부정입찰의 경우 사기 미수라고 봤다. 2심은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과 추징액 36억 원을 선고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수뢰 혐의 총경 징역 선고

돈 빼돌린 수출업자 징역 8년

수출업자로부터 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방경찰청 총경 김모(58)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 총경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금융대출을 받아 수백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수출업자에게는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판사 정상규)는 1일 수출보증금사 제도를 악용해 금융대출을 받아 수백억원을 국외로 빼돌린 정모(5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죄 등을 적용해 징역 8년에 벌금 1920만원, 추징금 45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일부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혜로 도피시킨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다수의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뇌물 제공액수도 4000여만원이 넘는 점, 범행이 발각 위기에 처하자 해외로 도주하고 다른 사람 여권을 양도받은 여권법 위반 등 추가 범죄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3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 총경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 추징금 79만4520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총경이 정씨로부터 받은 3억5000만원 중 500만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1억원에 대해서는 무죄, 아내 회사의 계좌로 받은 2억원은 뇌물이 아닌 투자금으로 인정해 차용금에 대한 이자만을 추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차장 변신 중인 옛 광주여고

1일 오전 광주시 동구 서석동 옛 광주여고 부지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외곽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옛 광주여고 부지에 63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 중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빛원전 정비 담당 한전KPS 직원 자살

영광 한빛원전 2호기 정비를 맡았던 한전KPS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일 영광경찰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전 9시20분께 영광군 흥농읍의 한 폭포 주변 나무에서 한전KPS 직원 김모(42)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김씨가 동료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미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4일부터 진행된 한빛원

전 2호기의 정기 정비에 투입됐으며, 최근 작업 중 발생한 격납용기 내 설비 누수 현상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받아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사전에 계획된 정비 및 검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수행된 ‘증기발생기 작업용 배관 막음’ 공사가 부실하게 돼 원자로에 있던 물(보산수)이 증기발생기 안으로 새 들어와 작업 공정 지연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본부와 한전KPS

측은 이와 관련 “사용된 핵연료를 꺼낸 뒤 원자로 용기 용접부 안전성 검사와 증기발생기 세균(전염균) 비파괴 검사를 위해선 두 계통의 물 흐름을 차단하는 작업(증기발생기 작업용 배관 막음)이 완벽해야 하는데 지난 28일 일부 튜브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로에 있던 보산수가 줄줄 새면서 증기발생기 안전성 검사를 하는 장비가 일부 쪼그 공정이 지연돼 (해당 작업을 했던) 숨진 김씨가) 다소간 질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빛원전 측은 이번 누수 사건과 관련, 설비 안전과 주변환경에는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0가구 이상 마을 500m내 묘지 불가 기준은 실거주”

‘20가구 이상의 마을에서 500m 이내 지역에는 묘지를 쓸 수 없다’는 규정의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이 아닌 실거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창환)는 A씨가 합평군을 상대로 낸 묘지이전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1~2009년 사망에 따라 조성된 부모와 남편의 묘지를 합평군 나산면 수산리에 함께 이장했다.

합평군은 사실묘지 설치기준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받고 조사에 나서 2014년 6월 ‘묘지 설치 신고도 없이 20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 이내에 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묘지 이전을 명령했다.

A씨는 해당 묘지가 마을과 177m 떨어진 곳에 위치하지만, 주거밀집지역은 실제 사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묘지 이전 당시 실거주자는 17가구에 불과해 합평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거(인가)밀집지역은 실거주자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합평군의 묘지 이전 명령 당시 이 마을에 세대주로 등록된 가구는 29호이지만 상시 거주하는 가구는 16호라며 원고 승소의 근거를 들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T-50 전투기 착륙 사고 파손

광주의 한 공군부대에서 훈련 중이던 T-50 전투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사고가 발생,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전 11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학생 조종사

A씨가 몰던 T-50 전투기가 착륙 도중 급정지하면서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전투기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동체 일부와 바퀴(랜딩기어·착륙장치)가 파손됐다. 전투기에는 A씨 혼자 탑승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대포통장 판매 후 돈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뒤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20대 경찰서생.

○~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27)씨는 지난 3월23일 오후 6시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 이름으로 발급된 통장 1개를 10만원에 판매하고, 다음

날 오전 10시에 보이스피싱 피해자 김모(44)씨가 자신의 계좌에 2000만원을 입금하자 이를 인출해 가로챈 혐의.

○북부경찰은 최근 구속한 한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총책에게서 압수한 통장을 추적해 이씨를 붙잡았는데, 경찰은 “이씨가 판매한 통장을 새로 발급받는 수 방법으로 피싱 사기 피해 금액을 중간에서 가로챘다”고 설명.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20년 노하우

미래형 투자 컨설팅 지오옥션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 (주)

고객 맞춤형 투자 추천!! 전지역 부동산 신속한 책임중개상담
경, 공매 NPL 컨설팅 전문업체

경매 추천물건

- ★ 광주 남구 주월동 6층상가 대지 342㎡ 건물 1,259㎡ 감정가79 6백만원 최저가 5억5천7백원 초등학교앞 학원건물
- ★ 전남 나주시 경현동 한수저수지 금성산입구 2중주택 2층상가 대지 705 건물 600 감정가 8억1천8백 최저가 3억6천6백
- ★ 광주 북구 우산동 현대아파트인근 도로변 2층상가 대지 289 건물 388 감정가 3억5천9백 최저가3억5천9백 현 식당성업중
- ★ 광주 서구 쌍촌동 운천역인근 5층숙박시설 대지298 건물1206 감정가 12억2천5백 최저가 5억4천9백 (45%)
- ★ 광주 북구 대촌동 첨단상성전자인근 공장 대지 3293 거물 1495 감정가 17억5천1백 최저가 12억2천5백만원
- ★ 광주 북구 매곡동 4층상가 대지 739㎡ 건물1,261㎡ 감정가1216백 최저가 851백만원 학원 식당 운영중
- ★ 전남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도로변 3층상가 대지 691 건물989 감정가 8억8천3백 최저가 4억9천4백만원 병의원전합
- ★ 전남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해안가 5층모델 대지 1,449㎡ 건물 1,258㎡ 감정가 9억5천7백 최저가 2억7천4백만원

공매 추천물건

-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계획관리지역 10,706㎡ 무안공항인근 펜션 부지 적합 바다 조망 감정이 915백만원 최저가 915백만원
- ★ 전남 장성군 학림리 전 1574 첨단3지구인근 도로변 감정이 8천1백만원 최저가 8천1백만원 주말농장 최적합
- ★ 전남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도로변 담 1032 감정가 2천만원 최저가 2천만원 전망좋은 전원주택적합

수익형 일반매매

- ★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부근 근린시설용지 기업은행뒤편 대지 479㎡ 매매 58 (조정가)
- ★ 광주 동구 학동 일반상업지구 대지 195㎡월빙간강랜드부근 매매 22천만(조정가) 현 주차장이용
- ★ 광주 서구 화정동 6층 모델유형 대지 416㎡ 건물 2,000㎡ 터미널 뒤편 객실20개 상가4개 고수익율 매매27억원(13억포함)
- ★ 광주 광산구 우산동 80미터 도로변 3층무인텔 대지 2,372㎡ 건물 2,760㎡ 객실36개 매매58 (28억포함),수익성월8천정도

투자추천 일반매매

- ★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4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옆 매매 135
- ★ 광주 남구 주월동 단층 상가 대지 675㎡ 남구청 옆 일반상업지구 투자적합 고층건물 건축가능 매매24억원
- ★ 광주 서구 치명동 상무지구 명지원옆 중심상권 상가건물 대지 496㎡ 매매40억 (보증금 23, 27)
- ★ 광주 북구 유동 오리탕거리인근 대지422㎡6층 모델 객실28개 최신리모델링 매매 8억 (48천 추가3억대출가능)
- ★ 광주 광산구 월계동 송덕고인근 대지222㎡ 건물400㎡ 원룸15개 안진방3개 매매 63천 대출 2억포함 보증금 4천 월세5
- ★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매매13억원
-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펜션,빌라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 가능 광주수익형 상가 교환가능
- ★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20년경력 010-6211-4585 조여사 / 상가 및 전원주택부지 파실분 문의 환영(실수요자 다수확보) 062-714-2251